

# 梧峯선생(1562~1624)의 訓戒와 龜鑑



오봉선생 탄생 460년을 맞이하여

2021.7.19.(음력)

아주신씨 오봉공파 중중

# 梧峯선생(1562~1624)의 訓戒와 龜鑑



오봉선생 탄생 460년을 맞이하여  
2021.7.19.(음력)  
아주신씨 오봉공파 중중

梧峯선생의 訓戒와 龜鑑  
(1562~1624)

- 뿌리를 알고 지키자. <sup>1</sup>
- 孝悌忠信 사상을 본받자. <sup>2</sup>
- 구국정신을 실천하자. <sup>3</sup>
- 政事를 소신대로 행하고, 사색당파에 직접 개입하지 말 것이며 중용을 지키자. <sup>4</sup>
- 구휼, 복지, 자립정신을 실천하자. <sup>5</sup>
- 폭 넓은 인적교류와 인간관계를 형성하자. <sup>6</sup>
- 용모, 기상, 행실, 학문, 재능, 성품 등의 세평을 본받자. <sup>7</sup>
- 관리로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 선견지명을 갖자. <sup>8</sup>
- 退溪(1501~1570) 학맥과 南冥(1501~1572) 학맥의 학풍을 흡수하여 학문 간의 연계와 광역화를 시도한 조선중기의 유능한 선비·학자. <sup>9</sup>
- 후진양성, 교육에 투자하고 매진하자. <sup>10</sup>
- 오봉선조에 의한 명문가 입지에 대해서 후손들은 자부심과 겸손한 마음을 갖자. <sup>11</sup>
- 종택 보존, 기록관리, 전통을 지키고 500년 아주 신씨의 본거지 의성 귀미동을 발전시키자. <sup>12</sup>

오봉선생 탄생 460년을 맞이하여  
2021.7.19. (음력)  
아주신씨 오봉공파 종중



<註>

## 1. 始祖, 中始祖 등

### 1) 始祖 : 申英美

- 고려, 거제도 鵝洲縣 權知戶長
- 생존예측 : 고려 18대 의종(1146~1170)-22대 강종(1211~1213)
- 配 : 密城君 夫人 朴氏
- 1271(고려 원종 12) 三別抄亂으로 거제도에서 居昌으로 강제집단 이주 1432(세종 14)까지 160년간 거주하고 귀환 조치

### 2) 入鄉始祖 : 4代 申允濡

- 고려 충렬왕 6, 1280, 판도판서
- 상주부 단밀현(의성군 단밀면)으로 전입
- 配 : 貞夫人 星州 李氏

### 3) 5代 申祐(1283~개성 출생)

- 무과급제(충혜 5, 1344) 神護衛保勝攝護軍
- 고려말 전라도 按廉使
- 孝子로 유명(雙竹)
- 配 : 淑夫人 若木 柳氏

### 4) 6代 申光富(內府令公派 邑派 11개) 代表 : 虎溪公派(適道) 申光貴(鳳州公派 龜派 18개) 代表 : 梧峯公派(之梯)

### 5) 龜派 中始祖

#### 14代 梧峯 申之梯(1562~1624)

- 1589 문과 과거 급제
- 예안 현감(1591~1596), 안동 부사(1592.5) 겸임
- 창원 부사(1613.8~1618.3), 통정대부 승진(1617.5)
- (중) 이조 참판(1646)
- 配 : 貞夫人 咸安 趙氏(1563~1650)



## 2. 孝悌忠信

- 孝悌 : 효도와 우애
- 忠信 : 충성과 신의, 성심을 다함에 거짓이 없는 일

- 1) 집안 : 부모, 동기, 가족에 대해 孝와 애정(孝悌)을 근본으로 삼았다.
- 2) 몸가짐 : 忠信 위주
- 3) 관직 : 직위의 高低와 難便에 관심을 두지 않음.
- 4) 스승 : 공경 · 섬김
  - 김언기(1520~1588), 김성일(1538~1593), 류성룡(1542~1607)
  - 퇴계(1501~1570)
- 5) 관할 백성 : 애민정신, 구휼정신
  - 전란, 흉년, 질병, 왜구침입
  - 경감 없는 세금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백성을 구제하고픈 마음
  - 전통적인 선비정신 발휘
- 6) 1569년 12월 오봉이 8세 때에 어머니 朴氏의 상을 당하면서 몸이 야윽 정도로 슬퍼하는 것이 어른과 같았으며, 태어난 지 겨우 10개월 된 어린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직접 유모를 구해 젖을 먹였다.
- 7) 아버지 좌승지 신몽득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했고, 본인이 병(풍비)을 앓고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계모 오씨의 병환이 심해 걱정하고 있었다.
- 8) 1609년 2월 선조 임금이 승하하자 여막 문을 나가 서쪽을 바라보고 통곡했으며,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인 축출된 소식을 듣고 한양 도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 9) 창원 부사(1613~1618)때 적은 시집(檜山雜詠)에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 애민의식을 살펴 볼 수 있는 詩가 많으며 내용 중에는 추위 때문에 물도 못 길고 아침밥도 못 짓는 힘든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10) 오봉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왜적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한 모습, 가족들이 빨빨이 흩어진 상황을 근심하며 지은 詩들이 있다. 그는 임란때 의병을 일으켜 영남지역 방어에 힘썼는데 이 시기에 친형 申之孝, 스승 김성일, 의병장 친우였던 김해 장군의 죽음을 맞이했다.





### 3. 救國精神

- 1) 목숨 건 치안유지와 의병활동으로 임란공신 훈공 宣武原從功臣 1등, 扈聖原從功臣 2등 2개 받음(1605)
- 2) 한 때 중앙정부까지 걱정하던 남해안, 도서, 육지를 휩쓸던 수천 명의 떼강도 明火賊(두목 : 정대립)을 체포·소탕으로 공훈교서를 받고 通政大夫로 승격(1617)
- 3) 정유재란으로 팔공산성으로 순찰사 종사관 및 定略將軍(중 3품) 무관직을 제수 받고 인접지역 수령들과 2년 가까이 전투 참가.
- 4) 火旺山城으로 달려가(1597) 광재우와 동맹
- 5) 임란기간 7년 동안 4년 7개월 難治之鄉 예안 현감을 수차례 연임하고 안동부사까지 겸임 (1592.5) 선조 임금 재임기간동안 의성 현감 22명, 비안 현감 16명 교체
- 6) 1593년 임란기간 중 경상좌도 관찰사 한효순에게 의병대책으로 4가지 사항을 지적·건의
  - 포상제도와 사기문제
  - 군율의 불공정
  - 보좌진(막료)들이 필요이상으로 많음
  - 시급한 군비 확충
- 7) 1597년 2월 세자(광해군) 시강원 문학으로 있다가 정유재란으로 전쟁터 근무를 자청
- 8) 사헌부를 대표하여 선조에게 제출할 상소문(劄子) 초안(1605)에서 임금과 대신들에게 直言(權奸이 국정 장악)을 서슴치 않았으며, 대사헌 박승중(1562~1623)이 중간에서 차단시키자 사표를 던지고 낙향.
- 9) 임진란으로 선조 임금이 관서지방으로 몽진(蒙塵)하였을 때 오봉 선생은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왜적들과는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오봉과 김해는 최초로 예안지역 의병을 조직하였고, 곧 이어 안동지역과 그 인근지역(의성, 군위, 의흥, 비안, 봉화, 청송 등) 연합의병 조직을 만들어 왜적에 저항하였다.



#### 4. 정치, 당쟁

- 1) 어록으로 “관직에 있는 자가 파직을 두려워하면 남에게 굽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오봉 문집)
- 2) 창원 부사 재직 때 권세가 鄭仁弘(1536~1623)(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역임)이 합천에서 살고 있었지만 찾아간 적이 없고 중간에서 이간시키는 사람이 있었으나 정인홍은 오봉을 믿고 미워하지 않았다.
- 3) 통제사 종사관으로 부임 초 그의 조카가 청탁을 넣었으나 거절하였음.
- 4) 당파싸움에서 스승 김성일과 류성룡이 처음에는 동인, 후에는 남인의 거물이었지만 오봉은 당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5) 한산도에 들어가 원균의 작전실패 원인 등을 조사하여 순찰사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의 구제주장과 수군정책 개선 건의는 류성룡 의견과 유사하다고 하여 선조와 주위의 오해와 비판을 받았음,
- 6) 퇴직과 동시에 의성 구미동(고향)에 정착한 후 한양에 편지 보낸 적이 없었다.
- 7)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는 정국의 주도권이 남인에서 북인으로 전환되어 나간 시점이다. 정국변화 요인은 전쟁의 의병운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사화(士禍)와 당쟁으로 불리어진 정쟁(政爭)은 선조 임금과 임란기간 동안 극심하였고 이러한 정쟁은 사회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었다. 지배층의 분열은 결국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었다.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퇴계와 율곡이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였다.
  - 어찌 임금이 되어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질병이 극에 달하고 기한(飢寒)이 절박한데도 모른채 할 수 있겠습니까.
  -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치료할 약이 없는데 나라에서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정(仁政)을 어기고 백성을 핍박하고 찍어 눌러 물과 불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람들은 태평세월에 젖어가지고 아무도 나라가 흐트러지고 망하는 화근이 백성들의 원한이 영킨 데서 연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오늘날 국가를 개혁하고 분기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를 보전할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시대가 망해가는 징조가 나타나서 인심은 해이되고 동요의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 5. 구휼, 복지, 自立精神

- 1) 임진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을 때 길가에 시체가 즐비하고 굶주린 백성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오봉은 창고 문을 열어 식량을 배급하고 소식을 듣고 온 원근의 다른 고을 백성에게도 “피차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량을 나누어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 2) 1591년 11월 예안 현감 초임 때 강도 10여명이 체포되어 사형이 결정되고 집행을 위임받은 오봉은 풀어 주라고 명하면서 “너희들은 본래 양민인데 의식(衣食)이 곤궁해서 스스로 불의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니 너희들은 잘못을 고쳐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새 길을 가라.”라고 일러 주었다. 임란이후 이들은 70여명의 집단으로 용궁(예천), 예안, 안동, 의성 등 전투에서 오봉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구원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
- 3) 오봉 선생의 지론은 관이 먼저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해결하고 믿음을 주면 백성의 교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 4) 집안의 노비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목숨을 의탁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다. 부인 조씨가 시집을 때 데려온 여성 노비는 3대 동안 함께 살았는데 86세에 병사했을 때 장례를 치루고 다음의 漢詩를 남겼음(오봉 문집)

늙은 여종을 애도하는 만시(輓老婢)

하늘은 어이하여 너에게  
의지할데 없이 외롭게 했는가

노쇠한 몸을 주인집에 의탁하여  
오랜 병으로 몸이 야위었지

네가 죽으니 진정으로 슬프구나

잠깐 살다가 영영 돌아가니  
귀천은 따질 것이 없네

서리 내리는 새벽 만가 들리니  
주인의 눈물이 옷을 적시네

## 5) 龜尾淤(1610~1617 축조기간)

- 조선 태종부터 세조까지 연못(池)이 중심이었고 16세기부터는 하천의 물을 막고(川防) 끌어서 관개에 활용하는 淤의 보급이 확산
- 구미보는 오봉의 아버지 몽득 선생 때에 下川(풍리)에서 영농 조건이 유리한 구미동으로 이전 하고 오봉이 20리의 긴 淤를 7년에 걸쳐 축조했다.
- 淤의 목적은 농업 벼농사 혁명, 식량증산, 청백리로서 본인 퇴직 후 주거, 생계대책, 종택 건설 (증손자 숙범 1648~1713, 99칸 종택을 현 위치에 건축)등에 대비

- 구미보의 수세의 일부를 임진란 전사자 유가족 생계 보호에 지출
- 구미보는 현재까지 400년 이상 가동중, 湫完議(관리 규정)가 고문서로서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345호로 지정, 구미보는 문화재적 가치로 보아 국가 보물로 지정받을 필요가 있음
- 구미보의 물길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붓길 옆의 동네는 전기로 개울물을 끌어올려 수리면적을 넓히고 물길을 높게 하였다. 구미동네 앞은 경지 정리를 하여 이전의 붓길(舊湫)은 없어지고 경작지는 4각형으로 구획정리 되었다.
- 2021년 7월 본인이 1960년대 초반 부역을 다녔던 구미보의 시발점 봉양면 문흥동, 吉夫洞 상류지역을 4촌 동생(신인식, 신동원)과 종손대행(신명균)을 안내하여 확인하도록 했다.

## 6. 인적교류, 인간관계

- 1) 先賢 김성일, 류성룡 선생의 고제(高弟)로서 지도·편달 받음
- 2) 예안 현감으로 퇴계의 늙은 제자 조목(1524~1606), 김부륜(1531~1598), 이덕홍(1541~1596), 금난수(1530~1604)등과 교류하면서 퇴계사상의 전수, 지방행정의 논의 등을 통하여 폭 넓은 인맥형성
- 3) 전란 중에도 주기적으로 도산서원 참배, 젊은 생도·선비들과 강론 지속
- 4) 영남 출신 중앙 관료 27명과 同道會 설립(1601)
- 5) 임란 7년 동안 의병활동으로 경상좌우도의 많은 인사, 전주판관, 암행어사 등으로 전라도 관직을 맡으면서 선정을 베풀음. 정유재란 팔공산 회맹으로 그 주변 지역 수령들과 2년간 전투로 생사고락을 함께 했음. 광재우 의병장과는 화왕산 회맹을 통하여 왜군과 전투, 전란 후 개인적 친분 관계 유지
- 6) 임란 이후 특히 수창시(酬唱詩)를 통하여 많은 유명 인사와 교류
- 7) 오봉은 의병대장 김해(金垓) 장군과 같은 해에 과거 급제하여 교분이 매우 깊었다. 광산 김씨로 예안 출신인 김해는 임란으로 오봉과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처자식을 부탁한다는 언약을 맺었다. 1593년 김해는 부인과 사별하고 곧 경주 진영에서 병사했는데 그의 어린 자식들을 관아에 두고 부인이 직접 빗질하고 씻기며, 먹이고 길러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였다. 지금도 오봉이 김해 장군을 애도하고 고향하는 詩가 남아있으며, 최근 각종 행사에서 두 집안의 종손들이 양가에서 보낸 축하 화단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 8) 오봉 선생의 인맥 또는 대인 관계는 관리로서 중요한 시기가 1590년대 임진·정유재란과 겹치기 때문에 의병동지와 일반 지인, 선·후배 등을 구분하여 따로 정리하기 곤란하다. 처가(威安 趙氏)와 처남 4형제는 남명학과 曹植의 제자들인데 퇴계학맥과 남명학맥의 연계·교류 역할을 중간에서 오봉은 수행하였다.





## 7. 人物世評

- 평가자 : 스승(김언기, 김성일, 류성룡 등)

선배, 동료, 후배, 제자  
祭文, 輓詞, 墓誌 등

- 1) 용모 : 단정, 중후
- 2) 기상 : 바르고, 곧은
- 3) 행실 : 효성, 우애
- 4) 학문 : 박식
- 5) 재능 : 정치, 행정
- 6) 의지 : 굳세고, 지조가 있음
- 7) 처신 : - 평소 묵묵하게 자신을 감추고 자랑하지 않으며  
- 남의 선행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힘썼다.  
- 조정에서 벼슬할 때 지조가 확고하여 나아가고 물러남이 공명정대, 정사는 자신의 뜻대로 행함
- 8) 유명 인사의 인물평
  - 류성룡 : 오봉을 “으뜸가는 인물”  
오봉의 과거시험 답안지에 높은 점수를 준 류성룡(당시 대제학)에게 어떤 사람이 문의하자 “그 사람의 됴됨이를 평가하면 아마 문장보다 나올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장현광 : 오봉을 “어진 사람”
  - 이민성(1570~1629) 제문
    - 확고하여 꺾기 어려운 지조
    - 의연하여 범접하기 어려운 기색
    - 널찍하여 포용력 있는 도량
    - 절개가 곧고(사헌부 재직)
    - 어려운 고을을 다스릴 때 유능한 지방관이라는 명성
  - 호계 신적도(1574~1663) 輓詞
    - 타고난 바탕이 후덕, 품성이 절로 참됨
    - 사헌부 재직시 위엄과 명성 대단했고
    -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정치해 교화가 새로웠음
    - 겸손한 몸가짐은 고을 사람들의 본보기
  - 柳軫(1582~1635 류성룡 아들) 輓詞
    - 남을 대하는 마음에 의심과 시샘이 없었고
    - 고상한 기풍
    - 남쪽 고을 다스려 유능한 솜씨 인정
    - 翰林學士 명을 받들어 뛰어난 재주 펼침
  - 權相一(1679~1759) 文集跋文
    - 오봉의 저술 문장은 분명·유창·수려하고 빼어나며 진부한 표현이 없고
    - 詩는 격조가 맑고 높으며 의취가 전아하고 순정하여 세상의 속된 기운이 없었다.



## 8. 후반 관리 생활, 선견지명

- 1) 1606 : 통제사 종사관으로 제수되어 회합에 참석했는데 행장을 비롯한 여러 물품이 헤지고 많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 2) 주위의 지적에 대해 오봉은 “일찍이 통제사가 요구하는 물목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아 놀라서 내 어찌 그 사이에서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 3)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부터 1606년까지 10여 년 동안 오봉은 중앙관직에 있으면서 체찰사, 통제사, 순찰사 등의 고위 관직 종사관으로 군무안행사(현재 군기무사)로 많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기록 보존이 어려웠고 그 후 유사시(병자호란 등)에 활용되지 못했다.
- 4) 오봉은 관직퇴임을 예정하고 고향 구미동 못안(池內)에 1612년 종택 겸 살림집으로 초가집을 지어 놓았고, 1610년 구미보 공사 시작(1617년 완성)하고 동시에 후학 양성을 위하여 장대서당을 건설했다. 漕의 수세 수입으로 서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계획이어서 이 두 사업은 서로 연관되고 있다.
- 5) 아들 고승 신흥망(1600~1673)은 1669년에,
  - 장대서원 사당으로 景賢祠 건축
  - 구미동 종가 뒷편 오봉사당 건축
  - 불천위 제사(不遷位 祭祀) 시작
- 6) 오봉은 1607년 4월 아버지 좌승지 신몽득의 별세로 여막살이를 끝내고 1609년 12월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광해군의 정사가 어지러워지자 벼슬길에 뜻이 없었고 계모의 간청으로 창원부사(1613~1618)를 마지막 관직으로 성공리에 끝낼 수 있었다.(明火賊 두목 정대립 등 체포 · 토벌)
- 7) 오봉은 중앙 조정에서 여러 관직 재임 시 하루도 편히 쉬었던 적이 없었고, 또한 거취에 밝아 홀로 우뚝이 처신했으며 언뜻 보면 한스럽게 여길 정도로 강직하였다. 1624년 사후 아들(弘望)이 늦게 과거에 합격(1639)하여 선친의 뜻을 이어받았고(1647년 전주판관 자원, 1663 낙성당 건립) 후손들이 장대서원을 잘 관리해서 종가에서는 오봉의 각종 고문서 정리, 문집발간, 호적단자, 典籍등 8종 5冊을 경북유형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받았는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 9. 학자, 행정관료

### 1) 학자

- 완전한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인물 : 오봉은 원래 문과출신이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왜적과 전쟁하고, 명나라 원군지원, 순찰사 종사관으로 10여년간 얻은 경험으로 실질적으로 文武를 겸하게 되었다. 오봉 선생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팔공산성으로 가면서 定略將軍 무관직을 제수 받았다. 定略將軍은 조선 중기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五衛 가운데 左衛에 해당 (종3품)
- 1597.3 定略將軍 行 龍驤衛 副司直
- 국가 통치기구와 관련되는 관각(館閣)<sup>1)</sup>문학, 국가의 공적문장(교지 등)을 담당하는 지제교(知製敎), 개인의 서정을 토로하는 순문학에도 뛰어났다.
- 오봉은 17세기 초반 영남 학맥에서 이채를 띠는 인물이다. 문학사와 사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詩文과 일생의 업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오봉은 퇴계학맥(경상좌도)과 남명(南冥)학맥(경상우도)을 흡수하며 학맥 간의 소통과 광역화를 시도했다. 남명은 曹植(1501~1572)의 호이며 출사하지 않고 학문과 제자교육에 힘썼다. 퇴계 이황(1501~1570)과 더불어 영남사림의 지도자적 역할을 한 쌍두마차였다. 남명학맥은 임란의병의 주도, 복인정권 탄생의 주역이다. 의병대장 김면(金沔), 정인홍, 정구, 곽재우 등도 남명의 제자이다. 오봉은 남명학맥의 여러 학자들과 교류했고, 부인 함안 趙氏는 형조 판서 趙址의 딸로서 장성한 처남 4형제는 함안지역에서 남명학을 이은 학자들이었다.

### 2) 행정관료

- 오봉은 임진왜란 등의 전쟁이 없었으면 퇴계와 같은 유능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 오봉은 과거 합격 시초부터 중앙관직(1589.5 務功部 사첨시 직장)으로 출발했고 일반 급제자 9품 시작인데 비하여 오봉은 장원급제자로서 7품으로 출발했다. 그의 배경으로 스승 학봉 김성일과 오봉을 아끼는 류성룡이 있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퇴계 선생 본거지 안동지역 예안 현감을 자청했는데 효도할 부모(의성 거주)가 인접 지역에 있는 것도 이유가 되었다. 김성일 선생은 오봉의 예안 근무를 만류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 오봉은 지방관직에 있으면서 중앙관직을 겸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나치게 소신(고집)있는 처신과 곧은 직언, 무당파(無黨派)가 승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 오봉은 30년 관료생활에서 임란공신 훈공 2개(선무 1등, 호성 2등), 明火賊 정대립 사건의 해결로 훈공 1개(通政大夫)등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신, 정승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고집스러운 정도의 지나친 소신, 곧은 직언, 무당파가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또한 광해군 시절에는 관직제수를 사양(불응)했고, 마지막 관직 창원 부사는 계모 오씨의 간곡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조정권에서는 忠臣不事二君이라는 사상과 건강문제가 겹쳐 있었다.
- 오봉의 관료 시기는 전시하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당파에 가입·활동하지 않고는 출세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 왔다.

1) 관각(館閣) : 경연청(經筵廳), 춘추관(春秋館),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예문관(藝文館), 홍문관(弘文館), 규장각(奎章閣)등을 가리킨다.

### 3) 전라도 관직

- 조선 중기 이후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관직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전주 이씨) 때문에 유능하고 흠결 없는 관료가 임명되었다고 한다.
- 오봉은 1601년 전주 판관, 1602년 전라도 암행어사를 역임하였고, 전라도 都事(1601.1), 강계부 판관(1607.3)은 부친의 병환 등으로 부임하지 못했다.
- 전주 판관과 암행어사 때 탁월한 공적을 남겼고,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선정을 베풀었음
- 오봉 아들 고승 신흥망(1600~1673)도 1647년 전주 판관으로 제수 받았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자청했다고 한다.
- 오봉과 고승 부자의 전주 관직은 문집 등 기록에 분명히 적혀 있고 두 부자의 선정비가 옛날 전주 역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 10. 후진 양성, 교육

- 1) 창원 부사 때 전란으로 소실된 향교를 개인비용으로 재건
- 2) 퇴직을 염두에 두고 후학 양성을 위하여 장대서당(서원)을 건축(1610)
- 3) 2015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아주 신씨 오봉종택 유교책판(목판 활자)」은 1740년 장대서원에서 제작된 것이다.
- 4) 예안 현감으로 있으면서 임란기간 중 전쟁에도 불구하고 도산서원 참배와 젊은 유생들 상대로 한 강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 5) 형님 응암 신지효가 임란초(1592.7) 왜병에게 천동계곡에서 피살됨에 따라 그의 어린 아들과 손자까지 종손 대접하면서 양육지원, 결혼, 祭田分配, 교육을 시키고, 오봉이 임종에 이르렀어도 형님의 어린 손자에 대해서 엄하게 훈육했다고 한다.
- 6) 오봉의 학문 정진은 임진왜란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함께 사는 가족들도 이른 새벽 의관을 갖추고 책상 앞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자세는 아들 홍망도 본을 받아 각종 고문서, 교첩지, 유지, 교지, 조선8도지도, 영남동도회첩 등의 진귀한 서류를 많이 보관하고 있었다. 장대서원(오봉)과 낙선당(고송)은 후진 교육, 문집 정리·발간, 목판활자(1740)로 제작된 것이 2015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최근 5년 동안 오봉 선생 문집 국역, 종가 건물(사랑채 및 그 주위 부속건물) 개축이 정부 보조로 이루어졌고, 대원군 때 훼손되었던 장대서원도 1987년(묘우), 1996년(강당)이 각각 복원되었다.





## 11. 名門家

- 1) 1代 시조 : 申英美(거제도 아주현 權知戶長)
- 2) 11代 翰(증조부) : (증) 判決事, 조선시대 각종행사, 예식을 담당하는 장례원(掌隸院) 정 3품 관직  
配 : 淑夫人 장기 오씨
- 3) 12代 應奎(조부) : (증) 공조 참판  
配 : 貞夫人 창녕 曹氏
- 4) 13代 夢得(부) : (증) 승정원 좌승지  
配 : 淑夫人 월성 박씨, 고창 오씨
- 5) 13代 夢弼(삼촌) : (증) 자헌대부 한성 판윤  
配 : 貞夫人 고창 오씨
- 6) 14代 之梯(梧峯 본인) : 문과 장원급제 예안 현감, 안동 부사  
창원 부사, 통정대부, 定略將軍(팔공산성)  
(증) 이조 참판  
配 : 貞夫人 함안 조씨(1563~1650)
- 7) 15代 弘望(아들) : 문과 급제, 울산 부사, 풍기 군수, 通訓大夫 承文院 判校  
귀양일기 長沙日錄(동해 영덕 장사 해수욕장) 작성  
配 : 淑夫人 영천 이씨
- 8) 이상 5대에 걸쳐 연속으로 관직 제수
- 9) 오봉이 받은 임란의 宣武原從功臣 1등은 부모에게 봉작하고 자손에게 음관(蔭官)을 승습시킬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오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부, 증조부까지 관직이 추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자손에게 음관은 받지 않았다.
- 10) 오봉의 공덕으로 그의 6형제는 물론 아들 신흥망, 손자 한노·한걸·한백, 4촌·6촌·8촌 까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관직으로 명문가 자손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
- 11) 오봉의 삼촌 夢弼의 관직은 임란 초기 전 재산으로 군량미를 구입하여 의성현에 기부한 것이 인정된 것인데 선조 임금도 그가 오봉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몽필은 오봉의 동생 중 之行을 아들로 입양시켜 금뢰면(봉양면) 덕은동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 12. 宗宅 · 부속 건물 등

### 1) 宗家

- 최초의 오봉종택-1612.7(광해4) 從弟 申之門과 함께 구미동 정착  
못안(池內)에 초가집(살림집)건축
- 17代(오봉의 증손자) 叔範(1648~1713) 현위치 99칸 종택 이전 건축
- 26代 建洙(1868~1924)-1884.2 종가 축소 건축
- 현재 明均代行-2021.7 국고 보조로 사랑채, 부속 건물 개축

### 2) 梧峰祠堂

- 1669.8(현종10) 建廟-不遷位 祭祀 시작
- 1841 移建
- 1987.5.13. 경북문화재 지정 187호
- 1989.8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면 보수

### 3) 樂善堂

- 1663(현종4) 고승 신흥망(15代)이 서당으로 건축
- 1691(숙종17) 개축
- 1740(영조16) 소실
- 1752(영조28) 개축
- 1971.5 重建

### 4) 藏待書院

- 1610(광해2) 장대서당 건축
- 1672 祠堂 景賢祠 건축
- 1702 장대서원으로 승격
- 1740 오봉집 유교책판(목판활자 제작) : 2015.1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훼손 : 1868.5(고종5)
- 복원 : 1987(묘유), 1996(강당)
- 행사일 : 2월 下丁(하순)

### 5) 龜尾泐(1610~1617)

- 길이 20리(8km) 시작 : 吉夫村 의성방향 400m 지점  
끝 : 구미동 끝에서 도리원으로 가는 국도변 쌍천 바위
- 龜尾泐 新粧都目 完議
- 龜尾舊泐新粧都目 完議(古文書 : 경상북도 문화재 제345호)-泐중축
- 400년 이상 가동 중인 최장 구미보는 국가 보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



## 추 기 (追記)

- 2021년은 梧峰 (오봉) 선조의 탄생 460년이 되는 해이다. 아주 신씨 29개 지파 (귀파18, 읍파11)의 인물 중 가장 걸출하며, 최초의 과거급제자(1589)이다.
- 임진왜란 기간 (1592-1598) 동안 일방적으로 전력이 불리한 여건 아래서 왜군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국가위기 타개에 앞장 선 인물이었다. 전쟁 중에도 당파 분열, 당쟁이 지속되고 위기관리와 지도력이 부족하고 변덕스러운 선조와 광해군을 군주로 모셔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소굴 경상도 지역에서 명나라 군대의 식량지원 책임까지 지면서 왜군에 항쟁하였다. 전쟁이 터지자 경상도 다른 지역 수령들은 왜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부하 참모와 가족까지 데리고 도망을 갔다. 성곽, 관아, 식량, 무기창고 등은 빈터로 남아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산속으로 피난 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식량부족) 전쟁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
- 오봉 선생은 경상좌도 북부지역 예안현감(1591.6-1596.5)과 도망으로 공석 중인 안동부사를 겸직(1592.5)하면서 의병장 김해장군과 함께 예안 및 안동의 의병 연합조직을 결성하고 인근 여러 지역에서 왜군에 대항하였다. 임진왜란은 오봉 선조에게 생사위기, 고초와 충성보답의 양면 기회를 부여하였다. 본거지 예안에서 현감으로 있으면서 도산서원 참배, 퇴계의 늙은 제자, 젊은 선비와 전쟁 중에도 정기적으로 교류, 강론 등을 지속하였고 퇴계학맥과 남명학맥을 소통·교류시킨 조선중기 최고의 선비, 학자, 행정가이었다.
- 오봉 선생은 스승으로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의 촉망받는 제자(高弟)로서 두 분의 애정과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에서 7품으로 관직이 시작되었다. 두 분은 각각 동시에 동인과 남인의 거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쟁, 당파에는 따르지 않았으며 또한 권세가를 한 번도 찾아다니지 않았고, 임금 및 고위직의 부당한 지시에 소신껏 대처하여 위기와 오해, 진급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지방수령으로서 백성을 위한 구제와 교화에 힘쓰고 함께 사는 집안의 노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다.

- 오봉선생은 임진왜란·정유재란의 훈공으로 두 개의 큰 공신(선무원종공신 1등, 호성원종공신 2등) 등급이 주어졌지만 주위의 기대와 같이 대신이나 정승을 지낸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관직의 높낮이와 직무의 난이(難易)에는 평생 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오봉의 특이한 업적으로 관직말기에 7년간(1610~1617) 공사하여 완공한 귀미보(龜尾淤)의 존재이며 400년 이상 현재까지 가동 중이고 벼농사의 혁명으로 국가보물로 지정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귀미보는 20리(8km)의 조선중기 전국 최장 붓도랑 물길이며 수세수입의 일부는 임진란 전사자 유가족의 생계지원으로 사용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청백리로서 은퇴한 본인과 주위 후손들의 생계대책, 주거 및 종택 건설, 식량증식 등 생활혁명을 가져왔다. 또 하나의 공적으로 후손들의 노력에 의해 오봉이 건설한 장대서원(1610)에서 1740년 제작한 목판활자 오봉집(유교책판)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그 증표로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작한 기념패와 목판활자 사진이 최근 공개되어 460년에 지난 지금에 와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 아주신씨 여러 문중에서 중시조 각 지파 가운데 문집, 각종 고문서, 유물 등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문중은 오봉종가이다. 1612년 건축된 오봉종가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 최근 한국국학진흥원, 조문박물관에 위탁 보관되고 있다. 모든 자료내용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내용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0년대부터 번역, 연구발표, 박사학위 논문 등이 공표되고 있어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 ① 도운회(陶雲會) 주최 의성지역 오봉선생, 만취당 선생(안동김씨) 세미나 2016.4.30. 개최, 박명숙의 오봉선생 논문발표가 있었다.
- ② 황만기 교수, 오봉종가 고문서(1918), 장필기 교수, 의성 아주신씨 가계와 고문서 자료(2020)
- ③ 신수식 교수(오봉 14세 손자, 의성 귀미 출생), 오봉 신지제의 생애(1562-1624)와 임진란 의병활동, 성문기획, 2020 단행본 240쪽.
- ④ 대표적인 연구로서 오봉선생 문집 국역(2019), 한국국학진흥원, 2권. 각 500쪽.
- ⑤ 젊은 한학자 김기엽 박사의 오봉 한시(수창시) 집중 연구

- 오봉 문집 국역사업 참가한 3인중 한 사람
  - 오봉 수창시에 대한 논문 여러 편 발표 (1918-1921)
  - 2022.2. 고대 대학원 한문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오봉의 수창시가 조선중기 영남학단의 학적전승과 교유에 관해 주요 자료 및 내용으로 서술되었다.
- 오봉종가는 고택으로 종가 본 건물과 그 이웃에 낙선당 서당, 오봉사당이 있고 별도로 장대서당이 있다. 이 건물 등은 1610년대 귀미보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조되었으며 불천위 제사도 오봉사당 건립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매년 음력 1월8일은 오봉선생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날이며 규모와 참석 인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만 그 전통은 유지되고 국학진흥원에서 제사의 전 과정을 촬영하였다. 최근 제사 모임에서 아주신씨 귀파의 중심으로 오봉공파의 중시조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공적사항을 요약·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본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고 종가의 종손과 여러 형제들, 후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심 끝에 여러 차례 수정·정리한 것이, 『오봉선생의 훈계와 귀감』 12항목 결과물이다.

오봉선생 14세 손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07.8 ~ )  
신수식 (申守植 1942 ~)